

광주교육청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인상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학교급식에 사용할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인상했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친환경 쌀과 고춧가루 구입비를 각각 2.94%와 30% 인상했다.

광주산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가격은 20kg당 5만2500원이며, 친환경 고춧가루 1kg 가격은 4만1000원에 공급한다. 김치 가격도 불가지수 등을 반영해 3% 인상했다.

무농약 쌀 2.94% · 고춧가루 30% · 김치 3% ↑

올 예산, 전년비 15억7000만원 증가한 93억원

생산지 불가지수, 소비자 불가지수, 공급협력업체 희망가격, 정부양곡 판매가 상승률 등도 품목별 구매 가격 선정에 반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사용할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총액은 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7000만원 증가했다. 시교육청이 65%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가 35%를 부담한다. 중식 기준 학생 1인당 지원금액도 250원으로 25% 인상했다.

광주시교육청 김홍식 체육복지건강과장은 "광주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 전량을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함에 따라 친환경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올해 광주산 친환경 쌀 공동구매 예정금액은 65억원으로 지난해 26억원 대비 2.5배 증가해 농가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018 학교급식 기본 계획 설명회를 열고 올해 급식정책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조인호 기자

동구, 동적골 산책길 등 공중화장실 신축

광주 동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적골 산책길과 푸른길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한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과 인접한 동적골 산책로는 무등산 자락의 수려한 경치, 철쭉꽃밭 등 다양한 볼거리와 각종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공원이 있어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중 화장실이 1개소뿐이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동구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윤립동 77번지에 다음 달까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광주 서구가 위생시설의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영업장과 조리장,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육식자금 등을 융자하게 된다.

대상은 서구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료 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안전관리 기준(HACCP) 적용업소,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 등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는 업종 및 융자 종류에 따라 많게는 3억원까지 연 1%에서 연 2%의 이율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게 된다.

남구, 적법 광고물 활성화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

광주 남구는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법한 광고물의 활성화와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남구 관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통해 활성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를 대신해 허가나 신고를 대행해 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가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은 지난 해 연말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주)명진아이앤씨에서 맡게 된다.

북구, 어려운 건축민원 전문건축사 무료상담

광주 북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건축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무료 건축상담 서비스를 금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북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북구청 건축과에서 광주건축사회의 재능기부 건축사로 추천받은 전문건축사 20명이 참여하는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무료 건축상담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건축과정의 소요비용, 대처방안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총 64건의 건축상담이 이뤄졌다.

광산구, 창작판소리 윤상원곡 내달 2일 공연

광주 광산구는 내달 2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창작판소리 '윤상원곡' 공연을 개최한다.

창작판소리 '윤상원곡'은 5·18항쟁지도부의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한 작품이다. 윤상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이번 작품은 윤상원 열사와 함께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상원 열사는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나 노동자 아환인 '들불아학'에서 활동하다 5·18민중항쟁이 일어나자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전을 사수하다 장렬히 산화한 인물이다.

임형택 기자

“기회주의다”

민형배, 이용섭에 공개질의 쏟아내며 대립각
“지난 총선 낙선 후 스스로 광주 떠난다 말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23일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에 공개 질의를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 구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최근 이 부위원장에 사석에서 (광주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물었다. 이 부위원장의 출마 의지는 확고했다. 출마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지만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너무 많다"며 공개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이 부위원장은 광주를 떠났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떨어지자 누가 등을 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광주를 떠난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광주를

등에 업고 공직을 수행하다 광주가 공직을 주지 않으니 떠나야 정치인이 과연 광주에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떠났다. 일자리 부위원장 직을 갖고서 주말, 주중 가릴 것 없이 광주에 내려와 언론과 시민들을 만나며 시장 출마의 밑보를 지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 활용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구청장은 또 "이 부위원장은 세해 벽두부터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관리당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을 받았다"며 "반야 (문자메시지 전송)에 일자리 위원회 예산을 썼다면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이 부위원장에



문자메시지의 지역적 범위와 예산 출처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특이한 태도를 쉬운 말로 하면 '기회주의'라며 "기회만 있으면 자리를 엮겠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이고, 엮보는 태도가 언제라도 순기타를 놓거나 뺄 수 있도록 경계에서 서성거린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다. 세 시각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권 옥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대표 발의

직업 지위 인정·제도 처우 개선

전남도의회 권 옥 부의장(목포2)이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은 예술인들이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 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우선, 예술인의 복지증진으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도지사가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의 근로환경과 권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활동 증명자료 제출 지원 등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사무 등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율러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창작 공간 지원을 비롯해 예술 활동 후원, 재정 지원 등을 규정했다.

권 옥 부의장은 "예향의 고장 전남의 이름에 걸맞게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창작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전남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뭉쳤다

장애학생 위한 기관 간 하드·소프트웨어 융합모델 창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이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뭉칠

계획했다.

두 기관은 23일 전남교육청 비즈니스실에서 전남지역능력개발원(전남 합평군 소재)에 장애학생(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 구축 및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부처간, 기관 간 협업의 우수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장애학생 직업훈련 및 취업중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

스템 융합의 전국 첫 사례로도 손꼽힌다.

두 기관은 2017년 2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속기관인 전남지역능력개발원(전남 합평군 소재)에 장애학생(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 구축 및 직업전환중심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오는 3월부터 공동 연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진로직업교육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전남지역능력개발원 내 직업체험관의 호텔 린넨 등 14개 직업체험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및 훈련 대상 장애학생들을 선발·추천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진출을 돕는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